

##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Gender Comparisons**

Beik, Ah-Rong<sup>1)</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Doctoral Associate)

---

< ABSTRACT >

---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s.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acceptance, self-consciousness, and creativity were revealed using 6,145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3,037 male, 3,108 female) responses from the 6th year data on the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2013. Multi-group analysis analyzed gender differences. Results showed multicultural acceptance directly affects creativ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was significant. Meaning that multicultural acceptance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creativity but also an indirect effect on self-consciousness.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gender differences because measurement invariance was not satisfied, and male and female pathways were analyzed. As a result, all pathways were significant for both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rea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acceptance, creativity, self-consciousness, mediating effect, multiple group analysis

---

---

1) Corresponding Author: Beik, Ah-Rong, Post-Doctoral Associ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 E-mail: lena.baek16@gmail.com

##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백아릉<sup>1)</sup>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 < 요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6차년도 데이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6,145명(남학생 3,037명, 여학생 3,10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혔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행한 결과,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해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남녀 각각에서의 경로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논의 및 제언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수용성, 창의성, 자아의식,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

1) 저자: 백아릉, 박사후연구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E-mail: lena.baek16@gmail.com

논문투고일자: 2022. 2. 10 / 심사일자: 2022. 2. 11 / 게재확정일자: 2022. 2. 22

## I. 서론

청소년 시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에 대한 탐색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꾸준한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Yom & Cho,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자신만의 도식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계발하게 된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초연결 사회가 구현되면서 더이상 국내와 국외의 범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생활권이 확장되어 관심과 경험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Ahn, 2017). 이런 기조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또한 자연스럽게 글로벌 범위로 확장되고 있으며 세계시민성과 다문화 수용성 등 세계적인 범위의 학습과 적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Lee, 2013). 이전에는 청소년기에 받아들이는 새로운 경험이 가까운 범위에 있거나 자문화 중심이었다면 점차 자문화와 타문화를 아우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여러 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문화에서 이주한 주변 사람들을 통한 방법과 같이 다양하게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점차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Kim & Son, 2019; Lee, 2017).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동등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타문화를 자문화와 차별하여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한다(H. J. Kim et al., 2020). 이처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이에 따른 경험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색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쉽고 다양해진 다문화 경험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는 경험의 특성보다 이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개인의 변화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wak & Yang, 2017). 따라서 다문화 경험과 개인의 특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 요인 혹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문화간 충돌과 같은 이전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Cho, 2017; Kim, 2016; Ko, 2014).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다문화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재정의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4).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노출되어 다양한 관계를 경험해보고 떠올려보는 기회가 매우 중요한데 다문화 경험을 예시로 들 수 있다(Lee et al., 2015; Park et al., 2016).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이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 Lee, 2015; Leung & Chiu, 2010; Maddux & Galinsky, 2009; Park & Han, 2011; Saad et al., 2012). 이처럼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문화 경험도 개인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흡수될 수 있다(H. J. Kim et al., 2020). 다문화와 동등한 위치로 받아들여 융합할 것인지, 타문화에 대한 불편감으로 배척할 것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이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Kim, 2020). 따라서 같은 다문화 경험이 제공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에 따라 이를 소화하여 창의성으로 발현하는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H. J. Kim et al., 2020).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더불어 잘할 수 있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자신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은 자아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ark, 2003). 스스로가 어떤 특성과 배경지식을 가졌는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나 정체감 등 자신에 대한 인식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7). 자아의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 중 하나이다. 자아의식은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 혹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중 중복되는 개념을 정리하여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을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Namkung et al., 2015). 따라서 자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정의가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통해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H. J. Kim et al., 2020). 자아의식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은 청소년기에 강화되어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특히,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자아의식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변화하게 된다(Jang, 2009; Kim & Son, 2019). 때문에 이 시기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인 자아의식이 강화되어 창의성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변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 자아의식의 변화 및 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Kim & You, 2019; Sul et al., 2019). 특히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로 여학생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I. S. Jang, 2010; Lee & Kim, 2013; Min & Kim, 2013).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같은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며 이는 다른 변인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Yoon & Beik, 2021).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인들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성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과 자신에 대한 이해인 자아의식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구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시대에 학습자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자아의식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창의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모두가 중요한 변인임을 구명하고자 한다(Jang & Jung, 2018;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더불어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분석하여 추후 다양한 문화를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자 할 때,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문화나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들과 동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와 노력으로 정의된다(Kim, 2020; Min

et al., 2010). 더불어 문화 간 적응성, 문화간 유능성, 문화 간 감수성, 사회적 거리감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Chen & Starosta, 1997; Laumann, 1965; Lynch, 1992; Stier, 2003).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만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13). 최근에는 이해관계로 인해 이주민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여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과 태도를 더욱 중시하기도 한다(Yoon et al., 2020).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은 단순히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와 그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다문화 수용성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와 같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강한 환경에서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편견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Ellison & Powers, 1994; Kwak & Yang, 2017). 따라서 청소년기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과 관련된 변인을 구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여러 형태의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고 융합하게 된다.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은 다양성이라는 공통의 하위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되어 이를 통해 창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13; Son & Jo, 2006).

다문화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Yoon et al.,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경험을 넘어 타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융합하고자 하는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Kwak & Yang, 2017).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야와 문제해결력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Choi, 2007).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Leung et al., 2008).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등 다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문화를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욱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5; Maddux & Galinsky, 2009). 또한 외국을 여행한 경험과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였는데, 단순히 여행한 경험보다 새로운 문화에서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켜나가는 거주 경험이 더욱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창의성이 계발되어 더욱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구명하고 이들 사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의 관계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융합하면서 학습자는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는 다양한 개인 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학습 동기 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nnett, 2007; Kim, 2020). 이는 개인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문화 경험과 창의성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는 자아의식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이며, 자아의식뿐만 아니라 자아개념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Jang & Eo, 2013; H. J. Kim et al., 2020).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통하여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는다(Kim & Son, 2019).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공존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의식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nnett & Bennett, 2004; Park et al., 2016).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점차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연대감을 기르기 위해 다문화 경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Mo et al., 2018). 이처럼 원활한 다문화 경험과 이해를 위해 타문화를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이 중요하다(Ha, 2010). 다문화 수용성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를 구명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받아들인 다문화 경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Jang & Jung, 2018;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자아의식은 창의성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습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과 역량인 창의성을 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Kim, 2017).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창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Jang & Eo, 2013). 따라서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im & Jyung,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창의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구명을 통해 각 변인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타문화에 대한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 Kim, 2013).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주민이나 타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o, 2011; Kim, 2013; Lee & Kim, 2013; Min & Kim, 2013; Yang & Kim, 2015). 반대로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과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Hwang, 2010; I. S. Jang, 2010; Min & Kim, 2013; S. J. Jang, 2010).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8년도에 조사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ELS 2013) 자료의 6차년도(고1)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긍정적 자아의식, 창의적 사고능력, 다문화 수용성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와 같이 결측치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여 6,145명이며, 남학생 3,037명(49.4%), 여학생 3,108명(50.6%)이다.

#### 2. 연구도구

##### 가.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다양성과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과 관계성 모두 Min et al.(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예시로 ‘외국인주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고 믿는다'의 다양성 5문항이 있다. 관계성은 총 4문항이며 예시로 '우리 학교나 학급에 외국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하겠다'가 있다. 전체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양성 .90, 관계성 .94이었으며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5이었다.

#### 나. 창의성

창의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독창적 유연성과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독창적 유연성은 Jeong & Park(2002)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호기심 및 모험심은 Choi et al.(2008), Shin(2010)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탐구심은 Choi et al.(2008), Shin(2010)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모두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독창적 유연성은 예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가 있으며 호기심 및 모험심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이 재미있다'가 있다. 탐구심은 예시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즐겁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독창적 유연성 .88, 호기심 및 모험심 .84, 탐구심 .83이었으며 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2이었다.

#### 다. 자아의식

자아의식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 자아의식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이해는 Kim et al.(2009), Lim et al.(2011)의 문항을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은 Park(2003)의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자기이해는 예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가 있으며 총 4 문항이다. 자아정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가 있으며 총 5문항이다. 분석을 위해 자아정체감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이해 .88, 자아정체감 .82이었으며 변인의 전체신뢰도는 .8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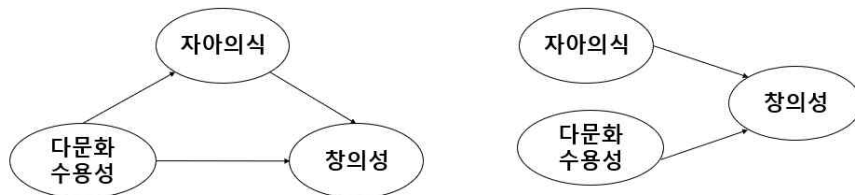
### 3. 분석 방법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 자아의식, 창의성에 대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을 검사하였다. 왜도 3과 첨도 10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성을 입증하였다(Kline, 2015).

둘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볼 때, 창의성과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자아의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다(Bennett & Bennett, 2004; H. J. Kim et al., 2020; Jang & Eo, 2013; Kim & Lee, 2015; Maddux & Galinsky, 2009; Park et al., 2016).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의식은 창의성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아의식이 이들 변인 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Jang & Eo, 2013; H. J. Kim et al., 2020). 더불어 자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로 볼 수 있는 자아의식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을 관계에서 어떤 매개를 할 것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H. J. Kim et al., 2020). 또한 이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실제로 자아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구명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hi^2$ 값과 CFI, TLI, RMSEA의 지수를 기준으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 자아의식, 창의성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였으며 붓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보여지고 있어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Hwang, 2010; I. S. Jang, 2010; Min & Kim, 2013; S. J. Jang, 2010).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5.0, AMOS 21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도는 절대값 .003~.8, 첨도는 절대값 .07~.7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상관분석 결과, 전체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술통계와 상관

	자아의식	창의성	다문화 수용성
자아의식	-		
창의성	.28**	-	
다문화 수용성	.31**	.43**	-
<i>M</i>	4.32	3.68	3.45
<i>SD</i>	.62	.65	.68

\*\*  $p < .01$

### 2. 구조적 관계 분석

#### 가.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Jeong, 2020; Kwon et al., 2020).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과 관계성의 2개 변인을 사용하였고 자아의식은 자기 이해와 자아정체감 2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창의성은 독창적 유연성, 호기심 및 모험심, 탐구심의 3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chi^2$ 값은 271.94( $df=11$ ,  $p < .001$ ), CFI는 .99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i>d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271.94***	11	.99	.97	.06

\*\*\*  $p < .001$

나.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chi^2$ 값은 271.94( $df=11$ ,  $p<.001$ ), CFI는 .99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더불어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값은 892.15( $df=12$ ,  $p<.001$ ), CFI는 .95와 TLI는 .92로 양호한 지수였으나 RMSEA는 .11로 부적합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할 때,  $\chi^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CFI, TLI, RMSEA를 기준으로 모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Hong, 2000). 이에 따라 연구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표 3> 참조).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271.94***	11	.99	.97	.06
경쟁모형	892.15***	12	.95	.9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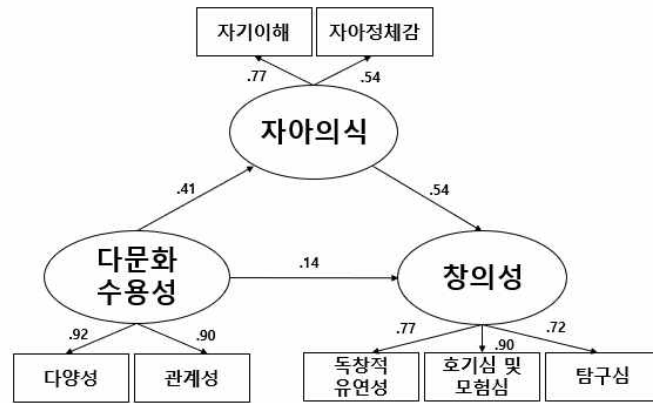
\*\*\*  $p<.001$

결정된 최종모형의 경로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 $\beta =.41$ ,  $p<.001$ ), 자아의식은 창의성( $\beta =.54$ ,  $p<.001$ ), 다문화 수용성은 창의성( $\beta =.14$ ,  $p<.001$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6***	.41	.02
자아의식 → 창의성	.61***	.54	.03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14***	.14	.02

\*\*\*  $p<.001$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 다. 매개효과 분석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고 Estimate, S.E., 부스트래핑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19~.25의 값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 < .001$  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의식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 관계에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LLCI	ULCI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 창의성	.22***	.01	.19	.25

\*\*\*  $p < .001$

※ L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상한값

### 3. 성별차이 검증

#### 가. 모형의 적합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측정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294.86(p<.001)$ , TLI=.97, CFI=.99, RMSEA=.05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남녀 학생의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다. 이는 남녀 학생 집단 간에 측정 문항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Millsap & Kwok, 2004).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될 경우, 집단 간 차이의 해석이 어렵게 되므로 집단별 구조모형을 통해 경로분석을 진행해야 한다(Jang, 2013).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각 집단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최종모형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df	TLI	CFI	RMSEA	$\chi^2$ 차이	df차이	p
비제약모형	294.86	22	.97	.99	.05			
제약모형1	322.44	26	.97	.98	.04	4	27.58	0
제약모형2	328.98	25	.97	.98	.04	3	34.12	0
제약모형3	806.06	39	.96	.96	.06	17	511.20	0
제약모형4	897.16	46	.96	.95	.06	24	602.30	0

제약모형1: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2: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3: 요인계수,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4: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 나.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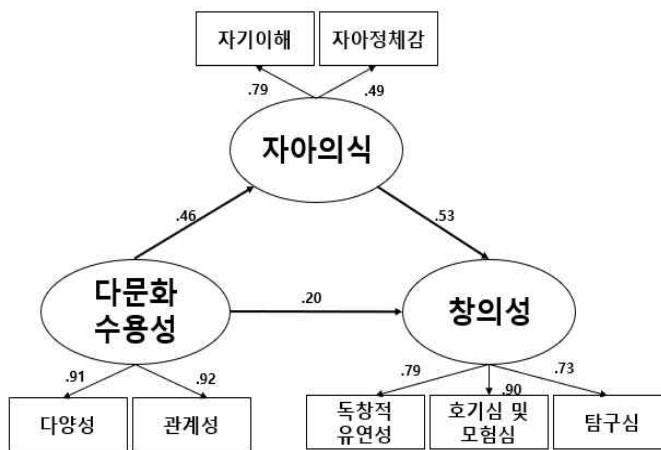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남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chi^2$ 값은 129.78(df=11,  $p<.001$ ), CFI는 .99와 TLI는 .98이며 RMSEA가 .0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는 [그림 3]과 같고,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7〉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 $\beta =.46$ ,  $p<.001$ ), 창의성( $\beta =.20$ ,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졌다. 자아의식은 창의성( $\beta =.53$ ,  $p<.001$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남학생)

경로	B	$\beta$	SE	C.R.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9***	.46	.02	19.92
자아의식 → 창의성	.60***	.53	.04	13.75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20***	.20	.02	8.29

\*\*\*  $p < .001$



[그림 3] 남학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다.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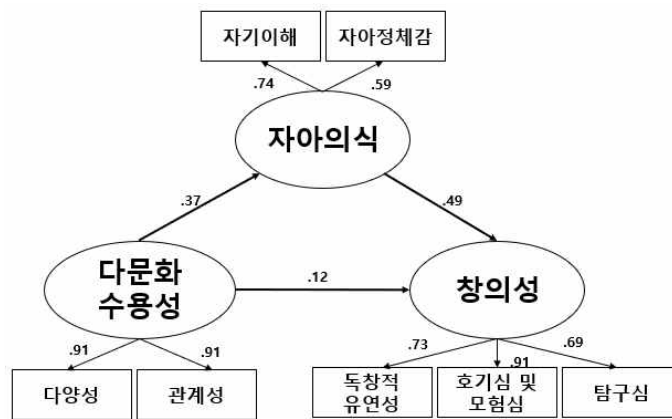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chi^2$ 값은 165.09( $df=11$ ,  $p < .001$ ), CFI는 .98와 TLI는 .97이며 RMSEA는 .07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는 [그림 4]와 같으며,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8>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의식( $\beta = .37$ ,  $p < .001$ ), 창의성( $\beta = .12$ ,  $p < .001$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의식은 창의성( $\beta = .49$ ,  $p < .001$ )의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또한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의식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여학생)

경로	B	$\beta$	SE	C.R.
다문화 수용성 → 자아의식	.34***	.37	.02	15.32
자아의식 → 창의성	.55***	.49	.04	14.51
다문화 수용성 → 창의성	.12***	.12	.02	5.57

\*\*\*  $p < .001$



[그림 4] 여학생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의식이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 본 구조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등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짐을 뜻하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으로도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이 창의성을 높이는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경험을 접하거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im & Lee, 2015; Park & Han, 2011).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구성원과 문화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빈번해졌지만 이에 대한 태



도나 받아들이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다(Kim & Son, 2019; Lee, 2017).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창의성과 같은 교육적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감정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자문화와 같이 존중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정보나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방면의 방대한 지식이 꾸준히 누적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화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여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인 창의성 또한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타문화를 존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며, 낯선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타문화를 단편적으로라도 경험해볼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창의성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5). 따라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계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하는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불어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을 매개로 한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통해 창의성과 같은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아의식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것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성이 효율적으로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7).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것을 구축하게 되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된다(Lim & Jyung, 2010). 또한 개인은 자신만의 관점과 사고의 틀을 통해 외부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것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관점과 사고의 틀을 가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단순히 진로와 관련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인지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취

약점을 객관적으로 고민해보고 자신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나 사고의 틀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차를 보기 위해 진행한 다집단 분석에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어 전체적인 연구구조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 측정동일성이 기각된 것은 문항을 남녀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전체적인 구조에서 남녀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남녀 각 집단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자아의식이 매개할 때 더욱 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Jang & Jung, 2018; Kim, 2020; Lee & Kim, 2019; Park & Park, 2015). 더불어 대부분의 변인 간 관계에서 남학생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에 비해 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측정동일성을 분석하였으나 충족되지 못하였고 부분측정동일성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남녀 각 집단이 주요 변인에 대한 개별 문항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각 문항의 상대적인 중요성 또한 다를 수 있다(D. I. Kim et al., 2020). 따라서 추후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 적합한 문항의 개발을 고려해야 하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단적 변화와 같이 좀 더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문화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확고한 자아의식의 개발과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의식을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알아보았으나 자아의식과 관련해서는 자기존중감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관점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위변인을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의식은 발달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변화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더욱 심









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6차년도 데이터인 고등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서는 창의성을 사고능력과 관련한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창의성은 사고능력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과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Jeong, 2002). 따라서 창의성의 다양한 차원과 변인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 등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변인으로 자아의식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자아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지각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방식에는 사고방식과 같은 다양한 변인이 있다(Rho, 2007; Yoon, 2003). 따라서 사고방식과 다문화 수용성 등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hn, J. B. (2017). Change of education paradig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edia & Education*, 7(1), 21-34. ☞ 국문: 안종배(2017).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Allyn and Bacon.
- Bennett, J.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Bennett, & M. Bennett (Eds.), *The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pp. 147-165) (3ed). Sage.
- Chen, G. M., & Starosta, W. J.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1), 1-16.
- Cho, A. M., Kim, J. H., Seol, H. S., & Jung, J. C.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 core competence and promotion plan II: Thinking skills* (09-R19-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국문: 조아미, 김정희, 설현수, 정재천(2009). 청소년 생애핵심 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고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R19-4).
- Cho, H. R. (2017). *The other in us-The multicultural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Changwon University Press. ☞ 국문: 조효래(2017). *우리속의 타자: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창원대학교 출판부.
- Choi, E. Y. (2007). *The effects of expression activities with multicultural approach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최은영(2007). *다문화적 접근에 의한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Choi, I. J., Lim, J. Y., & Kim, H. J. (2008). *Korean adolescent development indicator survey III: General report*.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08-R03). ☞ 국문: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R03).
- Ellison, C. G., & Powers, D.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385-400.
- Ha, K. A. (2010).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하경애(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국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wang, J. M. (2010).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3*(4), 152-184.  국문: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 연구, 53**(4), 152-184.
- Jang, E. H., & Eo, J. K. (2013).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concept, cross-cultural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89-305. <http://dx.doi.org/10.21479/kaft.2013.21.3.289>  국문: 장은화, 어주경(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289-305.
- Jang, I. S. (2010). The effects multicultural awareness on policy attitud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2*(1), 247-270.  국문: 장임숙(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247-270.
- Jang, J. I. (2009).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elf-efficacy of out-of-school adolescents.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Baengnok Nonchong, 11*(2), 141-163.  국문: 장정임(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11**(2), 141-163.
- Jang, S. J. (2010). Multiculturalism among Koreans: Role of economic self-interests and national identiti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4*(3), 97-119. <http://dx.doi.org/10.18854/kpsr.2010.44.3.005>  국문: 장승진(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Jang, S. M., & Jung, M. S. (2018).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youth.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6*(4), 47-68. <http://dx.doi.org/10.18230/tjye.2018.26.4.47>  국문: 장성민, 정민수(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6**(4), 47-68.
- Jang, Y. K. (2013). Multigroup analysis on the multicultural couples' quality of life in Korea.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20*(1), 55-85. <http://dx.doi.org/10.17089/kg.2013.20.1.003>  국문: 장윤경(2013). 다문화부부의 건강 삶의 질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55-85.
- Jeong, H. H. (2020). Exploring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ontinuous user's intention of

- online classe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nline alternative lectures due to COVID-19.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109-134. <http://dx.doi.org/10.34226/gcl.2020.10.4.109> 국문: 정한호(2020). COVID-19로 인한 온라인 대체 강의가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수서비스, 비교수서비스, 지각된 교육품질, 만족도, 지속적인 참여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109-134.
- Jo, J. I. (2011). Determinants of Korean political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low-skilled migrant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5(2), 281-305. <http://dx.doi.org/10.18854/kpsr.2011.45.2.012> 국문: 조정인(2011).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281-305.
- Jeong, E. I.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individuality-relationship and psycho-social adap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국문: 정은이(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Jeong, E. I., & Park, Y. H.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creativity scale.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7), 155-183. 국문: 정은이, 박용한(2002). 일상적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문제연구*, (17), 155-183.
- Kim, D. I., Shin, J. H., Choi, S. H., & Song, J. S. (2020). Employment readiness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ulti-group CFA for comparison with people without non-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9(4), 37-59. <http://dx.doi.org/10.18541/ser.2020.11.19.4.37> 국문: 김동일, 신재현, 최서현, 송주석 (2020). 발달장애인의 고용준비 특성: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비 발달장애인과 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9(4), 37-59.
- Kim, E. K., & Lee, B. K. (2015).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according to multicultural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4(1), 145-162. <http://dx.doi.org/10.17839/jksgt.2015.14.1.145> 국문: 김은경, 이보경(2015). 대학생의 다문화 경험과 창의성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14(1), 145-162.
- Kim, H. J., & You, D. R. (2019). Study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the elderly: Self-esteem and empathy.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2(3), 37-71. <http://dx.doi.org/10.14431/jms.2019.10.12.3.37> 국문: 김현정, 유두련(2019). 노인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2(3), 37-71.
- Kim, H. J., Cho, M. H., & Hong, H. Y. (2020).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awareness

-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7), 47-76. <http://dx.doi.org/10.21509/KJYS.2020.07.27.7.47> 국문: 김혜진, 조민희, 홍혜영(2020). 청소년의 자아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7(7), 47-76.
- Kim, H. N., & Son, E. Y. (2019). Relationship among the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361-381.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8.361> 국문: 김하늬, 손은령(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361-381.
- Kim, H. S. (2016). The study on senior multicultural education as intercultural educational cont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5), 335-353. <http://dx.doi.org/10.24159/joec.2016.22.5.335> 국문: 김한식(2016). 노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콘텐츠 방안연구. *교육문화연구*, 22(5), 335-353.
- Kim, H. Y.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2(1), 87-108. 국문: 김혜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2(1), 87-108.
- Kim, J. G. (2013). Competition and threat: Acceptance of 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43), 199-237. 국문: 김정규(2013). 경쟁과 위협: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수용도. *사회이론*, (43), 199-237.
- Kim, J. S. (2017). Self-comprehension in art education and creativity character. *Journal of Art Education*, 49, 1-22. <http://dx.doi.org/10.35657/jae.2017.49..001> 국문: 김정선(2017). 미술교육에서 자기이해와 창의·인성. *미술교육연구논총*, 49, 1-22.
- Kim, K. H., Maeng, Y. I., Jang, G. Y., Koo, J. H., Kang, Y. B., & Cho, M. H.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youth life core competence II: General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09-R19-5). 국문: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R19-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Ko, J. K. (2014).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ttps://www.kipa.re.kr/site/kipa/sta/selectBaseView.do?sSubCode=BIZ017A003&seqNo=STAT\\_000000000000883](https://www.kipa.re.kr/site/kipa/sta/selectBaseView.do?sSubCode=BIZ017A003&seqNo=STAT_000000000000883) ㉮ 국문: 고재권(2014).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Kwak, Y. K., & Yang, Y. M. (2017).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ies on middle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ing on self-esteem as a mediator.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0(2), 147-170. <http://dx.doi.org/10.14328/MES.20176.30.147> ㉮ 국문: 곽윤경, 양영미(2017).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0(2), 147-170.
- Kwon, M. H., Lee, J. Y., & Kim, H. W. (2020). A structural analysi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maladaptive conflict cop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163-193. <http://dx.doi.org/10.34226/gcl.2020.10.4.163> ㉮ 국문: 권민혜, 이지연, 김혜원(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163-193.
- Laumann, E.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1), 26-36.
- Lee, J. H., & Kim, K. K. (2013).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1), 53-77. <http://dx.doi.org/10.32465/ksocio.2013.23.1.003> ㉮ 국문: 이자형, 김경근(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Lee, J. Y.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Lee, S. Y., Kim, S. Y., Kim, J. H., Baek, K. C., & Lee, B. Y. (2015). Analyses of the reliability of a preliminary creativity test using the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theory.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5(3), 83-107. ㉮ 국문: 이선영, 김성연, 김정하, 백근찬, 이병윤(2015).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활용한 창의성 예비검사의 신뢰도 분석. **창의력교육연구**, 15(3), 83-107.
- Lee, T. S., & Kim, H. J.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gard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1281-1300.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1.1281> ㉮ 국문: 이태상, 김현정(2019). 아동의 배려와 다문화 수용성 관계에서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281-1300.
- Lee, U. J. (2017).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effect of policy orientation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With a focus on teachers and students from high schools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이언조(2017). **정책지향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ung, A. K., & Chiu, C. (2010). Multicultural experience, idea receptiveness, and creativ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5-6), 723-741. <https://doi.org/10.1177/0022022110361707>
- Leung, A. K., Maddux, W. W., Galinsky, A. D., & Chiu, C. (2008). Multicultural experience enhances creativity: The when and how. *American Psychologist*, 63(3), 169-181. <https://doi.org/10.1037/0003-066X.63.3.169>
- Lim, H. J., Kim, Y. B., Shin, H. S., Shin, J. H., Lee, K. H., Jang, Y. S., Ki, K. H., & Park, H. J. (2011). *School education status and level analysis (III): Elementary school studi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2011-22). ☞ 국문: 임현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장윤선, 기경희, 박희재(2011).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초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2011-22).
- Lim, H. S., & Jyung, C. Y. (2010). Relationships among creativity,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tatu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2(4), 53-73. <http://dx.doi.org/10.23840/agehrd.2010.42.4.53> ☞ 국문: 임효신, 정철영(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4), 53-73.
- Lynch, E. W. (1992).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491-512). Brookes Publishing.
- Maddux, W. W., & Galinsky, A. D. (2009). Cultural borders and mental barriers: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broad and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47-1061. <https://doi.org/10.1037/a0014861>
- Millsap, R. E., & Kwok, O. (2004). Evaluating the impact of partial factorial invariance on selection in two populations. *Psychological methods*, 9(1), 93-115. <https://doi.org/10.1037/1082-989X.9.1.93>
- Min, J. S., & Kim, D. S. (2013). Effects of the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4), 71-94. ☞ 국문: 민지선, 김두섭(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 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Min, M. S., Ahn, S. S., Kim, I. S., Kim, G. M., Ryu, J. A., & Cho, Y. K.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style multicultural receptivity diagnostic tool*. Social Integration Committee. 국문: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Mo, K. H., Bu, H. S., Ku, H. R., & Hwang, H. W. (2018). An analysis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3), 287-308. <http://dx.doi.org/10.14328/MES.2018.9.30.287> 국문: 모경환, 부향숙, 구하라, 황혜원(201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분석과 발전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11(3), 287-308.
- Namkung, J. Y., Kim, Y. B., Park, K. H., Jung, D. C., Park, H. J., & Kim, Y. W. (2015).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strument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2015-31). 국문: 남궁지영, 김양분, 박경호, 정동철, 박현정, 김유원(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개발원 (RR2015-31).
- Park, A. C. (2003).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73-392. 국문: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Park, H. J., & Han, N. J. (2011). The effects of integrated multicultural education on creativity and prejudice of childre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 72-95. 국문: 박현정, 한남주(2011). 통합적 다문화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 72-95.
- Park, J. O. (2013). *Integrate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creative play behavio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국문: 박재옥(2013). **통합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의 다문화 수용성 및 창의적 놀이행동**.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Park, J. Y., & Park, E. M.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of parent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3), 233-251. <http://dx.doi.org/10.15703/kjc.16.3.201506.233> 국문: 박지윤, 박은민(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233-251.
- Park, S. H., Kim, J. E., & Bang, B. N. (2016).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the accommodation of other person's perspective for the self understanding, the self accommodation and the self communication: Centered on the

- university students in Gunggi-Do and Seou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410-422.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7.410> 국문: 박상환, 김장이, 방병노(2016).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표현이 타인관점수용과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경기도의 한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410-422.
- Rho, M. M. (2007). *Comparison in creativity and types' of thinking between middle school scientific gifted and the norm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국문: 노미말(2007). *중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창의성과 사고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2004). Artistic scientists and scientific artists: The link between polymathy and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 L. Grigorenko, & J. L. Singer (Eds.),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 (pp. 127-15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692-008>
- Saad, C. S., Damian, R. I., Benet-Martínez, V., Moons, W. G., & Robins, R. W. (2012). Multiculturalism and creativity: Effects of cultural context, bicultural identity, and ideational fluenc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3), 369-375. <https://doi.org/10.1177/1948550612456560>
- Shin, M. S. (20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reative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3), 267-291. 국문: 신문승(2010). 초등학생용 창의적 성향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23(3), 267-291.
- Son, T. H., & Jo, B. J. (2006). The effects of creative program on young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1), 97-107. 국문: 손태호, 조방제 (2006). 창의성 프로그램의 적용이 유아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1), 97-107.
- Stier, J. (2003). Internationalisation, ethnic diversity and the acquisit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ies. *Intercultural Education*, 14(1), 77-91. <https://doi.org/10.1080/146759803200044674>
- Sul, J. B., Lee, E. K., & Kim, J. H. (2019).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atives and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of migrant adolescents in Kore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risisonomy*, 15(7), 103-123.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7.103> 국문: 설진배, 이은국, 김지혜(2019). 선주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Crisisonomy*, 15(7), 103-123.
- Yang, Y. M., & Kim, J. S. (2015).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 esteem, sense of

- community,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7(4), 309-328. <http://dx.doi.org/10.19034/KAYW.2015.17.4.14> 국문: 양영미, 김진석(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 Yom, H. C., & Cho, S. Y. (2007). Relationships of ecological variables with adolescents' stress. *Journal of Youth Welfare*, 9(2), 1-21. 국문: 엄행철, 조성연(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2), 1-21.
- Yoon, I. J., Son, J. H., & Lee, J. W. (2020).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of returned overseas Koreans and support policy for their settlement.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4(1), 7-46. 국문: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2020).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디아스포라연구**, 14(1), 7-46.
- Yoon, M. S. (2003). *Effects of thinking styles on academic achievement with the media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ubject-specific intere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국문: 윤미선(2003). **사고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및 교과흥미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Yoon, Y., & Beik, A. R. (2021).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ing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community competenc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6), 261-288. <http://dx.doi.org/10.21509/KJYS.2021.06.28.6.261> 국문: 윤영, 백아롱(2021). 고등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공동체역량 관계에 대인관계 및 배려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6), 261-288.